

규제개혁의 실험대가 될 ‘국가전략특구’

- 아베노믹스 3번째 화살인 ‘성장전략’의 핵심 요소인 규제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국가전략특구를 지정, 전략특구 내에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실시하여 외국자본의 유치,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예정
- 지정된 특구에서 규제개혁이 성공하면 다른 지역으로도 특구를 확대할 계획이지만, 기득권세력의 강한 저항을 어떻게 설득할지 등이 아직 불투명하여 성공여부에 대해 반신반의 하고 있는 상황

□ 국가전략특구란

- 국가전략특구는 지정된 지역 내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, 일본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으로 ‘성장전략’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
 - 특구는 의료나 농업분야 등의 규제완화에 대해, 부처나 업계 단체 등의 강한 저항(‘암반규제’)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활용할 예정으로, 아베 총리는 향후 2년 내에 ‘암반규제’를 깨부수겠다는 의지를 표명
- 지정된 특구는 5월에 국가, 지방, 민간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하여 금년 여름 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, 일본정부는 계획을 승인한 다음 기업 유치, 고용 등의 목표치를 제시하여 정기적으로 달성도를 체크할 방침

□ 국가전략특구의 지정

- 일본정부는 3월 28일, 제4차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를 개최하고, 도쿄권(東京圏), 간사이권(関西圏), 오키나와현(沖縄県), 니이가타시(新潟市), 효고현야부시(兵庫県養父市), 후쿠오카시(福岡市) 등 6지역을 전략특구로 지정
 - 도쿄권은 도쿄도, 가나가와현, 치바현 나리타시를 포함,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
 - 간사이권은 오사카, 효고, 교토 지역으로 교토대학의 iPS세포연구소 등을 활용한 의료이노베이션 거점

- 오키나와현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목표로 하는 관광산업 거점으로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
- 후쿠오카시는 벤처기업의 고용 조건 정비를 위해 해고가 인정되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할 계획
- 효고현 야부시와 니이가타시는 농지의 유동화를 방해하는 농업위원회의 개혁과 대규모 농지를 추진
- 아베 총리는 다른 지역의 특구지정에 대해, 새로운 제안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표명
- 이번에 지정된 특구를 모델로 하여 규제개혁을 가속화시킬 수 있게 되면 전국으로 특구를 확대한다는 방침

□ 분야별 규제 현안과 완화 방안

<의료>

- 일본의사회가 첨단의료 등 보험 외 진료에 반대
 - 보험진료와 보험외 진료가 병행되면 신약이나 재생의료의 임상연구 추진 가능
- 일본의사회가 반대하는 대학 의학부 신설 허가
- 외국인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
- 해외에서는 승인받았지만 일본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의 평가
 - 현재 1기관이 독점으로 실시하고 있는 승인심사를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

<농업>

- 농업생산법인의 설립 요건 완화
- 농업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한 농지 전매를 시읍면 단위로 실시
- 신용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도록 지원
- 독자적인 식품기능표시 제도를 활용하여 식품을 고부가가치화
- 농가식당, 도시락 가공·판매 등 6차 산업화 추진으로 ‘뉴푸드밸리 특구’를 설치

<고용>

- 외국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운 해고 위법/합법 기준 등 일본의 노동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
- 경영자를 위한 상담과 고용분쟁을 방지하는 ‘고용노동상담센터’ 설립

□ 특구의 과제 및 문제점

- 국가전략특구는 ‘아베노믹스 성장전략’의 기둥이라고 하지만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추진하였던 ‘국가전략종합특구’, 고이즈미 정권의 ‘구조개혁특구’와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
 - 따라서 특구별로 설치될 ‘특구회의’에서 어디정도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초점
- 광역특구(도쿄권, 간사이권)도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규제개혁 계획을 책정할 때, 이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
- 오키나와현의 제안은 민간의원들의 평가는 낮았지만 후텐마기지 문제를 고려하여 스가 관방장관이 강하게 지원
 - 이에 대해 도쿄, 오사카, 후쿠오카와 경쟁 도시인 아이치(나고야)현은 특구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명,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을 요구

□ 시사점

- 국가전략특구는 아베 총리가 일본경제의 부흥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만 ‘암반규제’를 얼마나 완화시켜 줄 수 있을지가 성패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
 - 만약 이번에도 규제완화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성장전략 전체가 힘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구의 성공여부가 아베노믹스 성패를 결정
-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면도 있지만, 한국의 전기요금 인상, 일본의 광역 FTA 추진 등으로 일본기업들의 대한

국 투자매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, 또 외국기업 유치에서 양국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- 다른 한편에서 일본의 규제개혁이 진행되면 우리 기업들의 일본시장 진출이 용이해 질 수 있어 일본 벤처기업들과의 협력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4.3.28/29), 아사히신문(2014.3.29/30), 산케이신문(2014.3.30), 총리실 제4차 국가전략특별구역자문회의 배부자료(2014.3.28)

< 국가전략특구 개요 >

지역	주제	규제완화 내용
도쿄권	국제 비즈니스 추진	- 국제 비즈니스 거점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정비
		- 외국인 체제를 위한 숙박시설 제공
		- 글로벌 기업의 고용 조건 정비
		- 다양한 외국인 수용을 위한 재류자격 재검토
		- 외국인 전용 의료서비스 제공
간사이권	의료 이노베이션	- 재생의료 등 첨단의료 제공
		- 혁신적 의약품, 의료기기 등 개발
		- 벤처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고용 조건 정비
		- 국제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는 인재 육성
니이가타시	대규모 농업 개혁	- 농지의 집약·집적, 경작포기농지 해소
		- 영농인 경영기반 강화
		- 농업 벤처의 창업 지원
효고현 야부시	중산간지 농업 개혁	- 경작포기농지 등의 재활용
		- 농산물,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추진
		- 교류자 체재형 시설 정비
후쿠오카시	창업을 위한 고용 개혁	- 벤처기업의 고용 조건 정비
		- 다양한 외국인 수용을 위한 재류자격 재검토
		- 외국인 전용 의료서비스 제공
오кина와현	국제관광 거점	-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용이화
		- 입국 절차의 신속화
		- 외국인 다아버 수용
		- 해외 고급인재 수용